



목회칼럼 「 작은 타협이 가져오는 영적 사망 」

죄는 특정한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느 단계에서 막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갈수록 커집니다.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소설 <브라운 신부의 순진>에서 보석을 훔쳐 달아나려던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네. 친절할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할 사람도 살인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네.”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다가도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나 재치가 아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도 연약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음을 성은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 9월 합심기도

하나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합 2:14)
둘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시 91)
셋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계 17:14)
넷	교회의 직분자들이 상황의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불붙는 확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4주간 연장(9/5~10/3)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30명까지 각 공간별 대면예배를 1부(9시)와 2부(11시)로 드립니다. 30명 초과시 소예배실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❷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오전 11시)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❸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www.sechurch.kr](http://www.sechurch.kr)) 접속후 “실시간 예배 영상 바로보기” 클릭 또는 유튜브에서 “의정부 성은교회”를 검색하셔서 11시에 예배 동영상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온라인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교회청소 - 5셀 ▶ 다음 주 - 6셀

◆ 9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정우준 노성진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이희숙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1년 9월 12일 37호

2021년 성은교회 표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합 2:14)